

# 길어지는 집콕 생활 ... 가구 온라인 매출 '쑥'

더 편한 소파·멋진 책상 구매욕  
외출은 꺼려져 집에서 '클릭'

현대리바트·한샘 쇼핑물 매출  
작년보다 최대 25% 늘어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주요 업체의 1분기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월 이후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업체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게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온라인물 접속자 빠르게 증가

9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올 1분기 이 회사의 온라인 사업 매출은 약 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가구업계의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진 반면 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영 중인 '현대리바트관'의 접속자는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온라인 매출 목표인 150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해 온라인 매출은 1200억원 수준이었다.

한샘의 온라인 매출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3월에 지난해 같은



재택근무 등으로 소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을 통한 가구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리바트의 1분기 온라인 판매 증가율 1위 제품인 '레가토 리클라이너 소파'.

기간보다 16.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가구는 전통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본 뒤 구매하는 제품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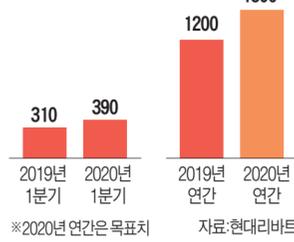
### ◆온라인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으로 소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휴식 혹은 재택근무를 위한 가구 판매가 증가했다. 현대리바트 온라인 판매 제품 중 매출 증가율 1-2위는 소파(전년 동기 대비 44%)와 책상·책장 등 서재가구(43%)가 차지했다.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방가구 '리바트 키친'의 3월 온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도 두드러졌다. 한샘 온라인 판매 가구 중 '아임빅 수납침대의 3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늘어났다. 슈퍼싱글 사이트 침대에 수납기능을 강화해 자녀 방이나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이다.

가구업체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현대리바트는 모바일 쇼핑 앱을 새롭게 내놔, 쿠팡과 G마켓 등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했다. 그 결과 신규 온라인 유통망으로 유입된 구매객이 작년 1분기보다 3배 이상 늘고, 고객층이 전년 30~40대 중심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변화됐다

### 늘어나는 현대리바트 온라인 매출 (단위:억원)



※2020년 연간은 목표치 자료:현대리바트

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근 '셀프 인테리어' 열풍을 타고 모바일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집, 집닥 등의 3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현대리바트는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총 1395억원을 투자한 '리바트 스마트워크센터' 물류센터 부문 가동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리바트의 전체 물류센터 규모는 기존 7만2000㎡에서 14만4000㎡로 2배가량으로 커진다. 임석수 현대리바트 B2C(기업과 개인소비자 간 거래)사업부장은 "올해 안에 기존 온라인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통합 온라인몰을 열어 온라인 시장의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소슬기 에이테크 대표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시 여성능력개발본부 창업보육센터에서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소개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 “맑은 공기를 휴대하세요” 조명기능 넣은 공기청정기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이고 젊은 감각을 보드 공기청정기 시장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소슬기 에이테크 대표(26·사진)는 20대 여성 창업자다. 사무실 책상이나 침대에 올려 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퓨리클'을 개발해 올해 초 출시했다. 그는 “시중에 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상당수는 공기정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작고 저렴하면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고, 무드조명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에이테크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설립	2018년
직원수	3명
주요제품	휴대용 공기청정기, 매트 컨트롤러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기나 보조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해 회사나 독서실 책상, 침대 옆 탁자, 식탁, 야기방 책상 위 등 15㎡(4.5평) 크기의 실내 공간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리하다. 천연가죽으로 된 손잡이는 이동성을 높여준다.

5대 유해가스·초미세먼지 걸러  
3단계 바람세기·3색 조명  
홍콩·동남아 수출 노크

소대표가 선보인 제품(퓨리클 공기청정기A1)은 보온 도시락 정도의 크기(가로 19.5×폭 12.5×높이 22cm)와 무게(1kg)를 나타낸다. 중대형 공기청정기처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중 필터 복합 공기정화 기술을 적용했다. 프리필터가 큰 먼지와 동물의 털 등을 제거하면,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나 니아 벤젠 등 5대 유해가스를 없앤다. 마지막으로 13등급의 고효율 헤파필터가 0.3㎛ 이상의 초미세먼지와 곰팡이 등을 걸러주는 식이다.

버튼이 없는 터치식으로 바람의 세기와 조명 색상을 3단계씩 조절할 수 있다. 알아서 필터 교체 시기도 알려준다. 전면부 공기 배출구는 슬라이드 형태의 커버로 여닫게 해 아이들이 뽀족한 물건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개인 전용 살균 제품이 이달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 대표는 “내부 공기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한 기술로 지난해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의 공기 오염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수출에 적극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소 대표는 2014년 대학에 입학해 올해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다. 재학 중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2018년 회사를 세웠다. 중소기업을 운영 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출신인 정순규 부장이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운 사회적기업인 무궁화전자가 투자와 함께 금형제작 및 생산도 지원했다.

소 대표는 “창업한 지 2년밖에 안됐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아 매출이 서서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홍보를 비롯해 무료 마케팅, 세무 컨설팅, 제작 지원 등 도움받을 기회가 많다”며 청년 창업을 적극 권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아기유니콘’ 200개 선발 ... 업체당 159억까지 지원

(기업가치 1000억 미만 스타트업)

### 정부 ‘K-유니콘’ 프로젝트

#### 미래기술기업 지원 1조 펀드 조성

정부가 내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약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20개, 2022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 기업’ 500개를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일명 ‘아기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선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성장 단계별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은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K-유니콘 프로젝트’를 내놔, 아기유니콘 기업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1단계)하고, 이를 유니콘 기업으로 더 키우는 2단계 정책을 마련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K-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 아기유니콘 → 예비유니콘 단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을 2019년 235개에서 2022년 500개로 확대
▶2단계 예비유니콘 → 유니콘 단계	유니콘기업 탄생 목표 200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까지 조기달성

경제,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산업 개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아기유니콘 사업은 벤처캐피탈(VC)·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과 국민심사단이 직접 기업을 선발해 육성하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장개척자금 3억원과 정책자금대출(100억원)·보증(50억원) 150억원, 연구개발(R&D)자금 6억원 등 최대 159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올해 4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아기유니콘 200개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사업 ‘빅3’ 분야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분야 스타트업도 250곳을 발굴해 5년간 최대 18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예비유니콘 수(235개)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에는 투자, 보증, 제도 등을 통한 스케일업(규모 확대)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을 위해 7000억원, 유니콘 도와 기업을 위해 2500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가 조성된다. 기술보증기금 주도로 특별보증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들 기업의 경영권 회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자동차 실내 살균 램프 서울바이오시스, 中에 공급

발광다이오드(LED) 칩 전문업체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실내 살균 램프를 중국 자동차 부품회사 연평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회사의 기술 브랜드인 ‘바이오레즈’가 적용된 자동차 실내 살균 램프는 차량이 정차한 뒤 탑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10분 내 운전석을 포함한 좌석, 핸들 등 차량 내부를 살균한다. 살균 램프는 차량 전장에 부착된다.

서울바이오시스 관계자는 “바이오레즈는 자외선(UV) LED를 사물에 비추거나, 공기정화 시스템에 LED 칩을 장착해 박테리아를 비롯한 유해균을 살균하는 기술”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만에 99.9% 살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개인 전용 살균 제품도 이달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열정 넘치는 청년 상인들의 창업 과정 TV프로그램

# 안녕하세요! 청년몰입니다

KTolleh tv 255번  
SK B tv 271번  
LG U+ tv 246번

지역별 채널번호와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청년상인 모집

- 모집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
- 대상시장: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 경기 안산 신안코아 제주 동문 공설시장, 대구 약령시장 전북 김제 전통시장
- 접수기간: 3월 12일(목) ~ 4월 29일(수) 18:00
- 지원혜택: 창업의 전과정 지원 - 점포매칭 - 매장 인테리어 임차료 지원 - 창업교육 및 컨설팅 - 홍보·마케팅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 031-8083-0121    경기 안산 신안코아 청년몰 조성사업단 ☎ 031-461-6973    제주 동문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 064-752-5335    대구 약령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 053-422-7773    전북 김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 063-546-5321